익산쌀 팔아주기 성황

시청 공무원·19개 기관단체 동참… 2264포 6000여만원 구매

익산시는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익산 쌀 팔아주기 소비촉진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익산 쌀 팔아주기 소비촉진 운동'에 지역 기관·단체 참여가 줄을 이어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탑마루 친환경쌀(10kg) 2,264포를 판매해 22톤, 6천여 만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촉진 운동은 2021년산 관내 쌀 재고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적정 쌀 값을 유지하고 수확기 수매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익산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1가정 1포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관내 공공기관, 단체로 릴레이 판촉 활동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 2주간 익산시청 직원들이 1,223포 3천2백여만원 상당 구매했으며, 익산소방서 등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1,041포를 구입해 2천 8백여만원 상당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농협과 함께하는 익산 우수쌀 나눔행사(1.5kg)를 9월 중에 익산역에서 추진해 건전한 쌀 소비를 위한 지역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릴레이 판촉 활동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익산 쌀 소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 쌀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며"쌀 소비시장을 즉석밥 등 기업 원료곡, 학교 급식 등 고정 대형 소비처로 판로를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25개소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과 수도권 학교 급식 등 기업 맞춤형 익산 쌀 매출 규모를 전년 대비 123% 확대해 2만7,000여톤, 52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쌀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내년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 목표를 3만 6,000여 톤, 600억원으로 정하고 농산유통과 전담팀이 대기업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익산시, 코로나19백신 다음달 1일부터 사전 예약 · 13일부터

익산시가 국산1호 코로나19백신 '스카이코비원'을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도입된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전통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항원 유전자(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면역반응 강화 및 중화항체를 유도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백신 등에 활용된 플랫폼이 적용돼 장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1·2차 기초 접종에 활용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에는 면역반응 강화를 돕는 물질 '보조제(adjuvant)'를 함유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며 13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잔여 백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SNS 통해 예약,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위탁의료기관 5개소(△홍내과의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의원 △고려내과의원 △김성국내과의원 △주내과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이며, 해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집단감염 우려 등의 사유가 있다면 3차 접종한 지 3개월 후에도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접종을 원하는 경우 확진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예약은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1339, 859-7618~24)를 통해 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의 돌입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수)는 30일부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제9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4,773억2,800만원 보다 3,054억6,500만원(20.7%)이 증액된 1조7,827억9,300만원으로 지난 26일부터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예결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영변경안을 시민들의 행복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개최된 심의로 9명의 의원 모두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다"며"예결위원들과 각 부서의 예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오는 31일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거쳐 9월 1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국회단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 국회의원실 방문,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적극 지원 요청

군산시 황철호 부시장이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0일 국회를 방문했다.

군산시 황철호 부시장이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0일 국회를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발빠르게 주요사업에 대한 확보 필요성을 사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황 부시장은 전북 소속 국회의원이자 예결위 소속인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결위 심의 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영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시 중점 확보대상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될 상임위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 국회단계에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군산, 어청도~연도 항로분리 여객운항 결손금 지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등을 건의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정부예산안이 곧 국회로 제출될 예정으로,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라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신규사업 및 감액된 계속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10월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하림그룹, '미식 식당전' 참가자 모집

국내 최대 규모 식품문화축제 NS 쿡페스트가 지역 맛집 경연 발굴에 나선다.

식품산업의 메카 익산시와 하림그룹 유통 전문기업 NS홈쇼핑이 함께하는 NS쿡페스트(Cookffest)가 10월 20일 익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로컬맛집 경연부문 대표프로그램인 '미식식당전'이 열린다.

시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로컬 맛집 발굴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마련된 요리경연인 '미식식당전 - 익산 닭요리대전'에 참가할 익산 외식업체 10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국내산 닭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 중인 음식점이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제외된다. 분야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야식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2팀씩 선정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ipitimezzang@korea.kr)를 통해 진행되며, 9월 26일(월) 서류심사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외식업체 10팀은 NS쿡페스트(Cookfest) 본선에 진출하여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다이로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소비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다음달 1에서 12일까지 익산다이로움 카드로 관내 전통시장 11개소에서 3만원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이로움 정책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시대에 가계소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응모 방법은 전통시장 내에 다이로움 등록가맹점에서 익산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해 물품구입 또는 식사비로 합산금액 3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시는 1,000명을 추첨하여 다이로움 정책수당 1만원을 다음달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군산시는 읍·면지역의 유실·유기견의 발생 예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를 말한다. 그간 읍·면지역은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유실·유기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중성화 사업 진행 시 미등록 개체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군산=김판곤기자